**선택 6·4**

## 이런 후보가 좋아요

광주·전남 유권자 30명에 듣는다 〈3〉

### 자영업자 맘편히 장사할 환경을

김인동(영암마트 화정점 점장·42)=경기침체로 소비가 위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워졌다. 이번 선거에서 당선자들은 맘편하게 장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대기업 상권이 골목까지 들어와서 영업을 하다보니 우리같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살 수가 없다.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활성화할 수 있게 대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자영업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일꾼을 원한다.

### 도덕성에 흠 없어야

김현석(광주대 교수·57)=성숙된 풀뿌리 민주주의가 주민들의 삶 속에 정착돼야 한다. 어느 후보가 내 고장·동네를 위해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왔는지 잘 살펴야 한다. 더 나아가 철저한 도덕성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으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인재는 누구인지 심사숙고해야 한다. 정·관계의 색 바랜 계급장, 실속없는 지명도, 재력 등을 무기로 한 표를 호소하는 후보는 배제해야 한다.

### 농민 판로 걱정 덜어줄 후보

박진원(영암군농민회 수석부회장·64 )=선거철만 되면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적임자는 본인들 뿐이라고 앞다퉈 공약을 내세우지만, 제대로 실천한 후보자는 드물다. 농자 천하지 대본 (農者天下地大本) 이라 했다. 최소한 주요 농산물 가격보장으로 농민들이 판로를 걱정하지 않고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정책을 펴고, 농민들의 직언직설을 귀담아 듣는 포용의 정치를 펼 수 있는 후보가 당선됐으면 한다.

### 與黨 견제, 제목소리 내줬으면

김은규(광주진보연대 사무처장·45)=광주정신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후보였으면 좋겠다. 당선 후 본연의 직무를 잘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권교체'를 위해서도 제 몫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비판을 수용할 줄 모르고 독불장군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는 야당으로서 제 목소리를 내주는 것 또한 유권자들의 선택에 부응하는 것임을 명심했으면 한다.

### 亞 문화전당 발전 시킬 후보 기대

김유정(전남대 독어독문학과 1년·북구 양산동·21)=생애 첫 투표인만큼 관심있게 각 후보자의 공약 등을 살펴보고 있다. 우선 5·18민주화운동을 모욕하고 왜곡하는 행태를 강경하고 현명하게 대응하는 분이 선출되길 바란다. 또 광주에 대한 선입견을 긍정적으로 바꿀 수 있는 자질을 지닌 지역 일꾼을 기대한다. 광주의 역점현안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의지도 갖췄으면 한다.

"한 표 부탁드립니다" 비옷을 입은 선거운동원들이 2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월곡동의 한 대로변에서 세찬 비바람을 뚫고 횡단보도를 건너며 한표를 호소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새누리당** | **득표율 얼마나 될까** | **진보정당**

## 4년전엔 시·도지사 두자릿수 달성
## '호남 소외' '세월호 참사' 반감 높아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새누리당이 불모지인 광주·전남에서 어떤 성과를 거둘지 주목된다.

각 후보들은 두 자릿수 득표율을 위해 '고분분투'하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정부와 여당의 인사 및 예산 등 '호남 소외' 지적과 함께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사건 등이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여당에 대한 '반감'(反感)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후보들은 "여당 후보가 있어야만 지역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호소하면서 지역민들에게 전략적 투표를 호소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새누리당 시당 관계자는 "목표는 두 자릿수 득표율"이라며 "후보들이 열심히 뛰고 있는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광주와 전남에서 두 자릿수 득표율을 올린 것은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였다.

한나라당 정용화 광주시장 후보가 14.22%, 김대식 전남지사 후보가 13.39%의 득표율로, 광주시장·전남지사 후보들이 두 자릿수 득표율을 기록했다.

앞서 제3회 지방선거에서는 한나라당 이환의 광주시장 후보가 11.00%를, 제1회 지방선거에서 민주자유당 전석홍 전남지사 후보가 26.49%의 득표율을 올렸다.

제1회 지방선거 시작 이후 광주·전남 광역단체장 여당 후보는 4명 만이 두 자릿수 득표율을 올렸을 뿐 모두 5%대 득표율에 그쳤다.

또한, 그동안 광주·전남에서는 여당 기초단체장도 1명을 배출하지 못했고, 광역의원 비례도 전남에서만 제3회와 제5회 지방선거에서 단 2명만이 배출됐다.

따라서 여당의 불모지인데다 '세월호 참사' 정국 속에 새누리당 광역단체장 후보들과 기초단체장 및 지방의원 후보들이 광주와 전남에서 득표율을 얼마나 올릴지도 이번 지방선거의 큰 관심거리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2010년 광주·전남 지방의원 39명 배출
## 후보들 득표보다 비례에서 선전 예상

이번 지방선거에서 통합진보당과 노동당, 정의당 등 진보 정당 후보들의 '약진'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통합진보당은 광주시의회 교섭단체 구성을 위해 광역의원 후보들을 중심으로 총력전을 펼치고 있고, 정의당과 노동당도 선거 막판까지 표심을 잡는데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지역 정치권에서는 진보 정당이 단일 정당이 아닌 3개의 정당으로 나뉘면서 과거 지방선거와 달리 '돌풍'은 일으키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지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현 통합진보당)은 광주와 전남에서 총 39명의 광역·기초의원을 탄생시켰다. 광주에서 첫 지역구 광역의원 1명을 배출했고, 전남에서는 2명의 지역구 도의원을 탄생시켰다.

기초의원 선거에서도 광주에서 10명이, 전남에서 14명이 당선되면서 사실상 광주·전남에서 진보 정당 '돌풍'을 일으켰다. 광역의원 비례도 광주와 전남에서 각각 1명씩, 기초의원 비례도 10명(광주 4·전남 6)이 지방의회에 입성했다.

통합진보당은 제3회 지방선거에서도 광주·전남에서 광역의원 비례대표 2명을 배출하면서 지방선거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어 2006년 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광주에서 기초의원 8명, 전남에서 3명을 배출하고, 전남에서는 광역의원 비례 1명을 당선시키는 등 광주·전남의 '풀뿌리' 대안정당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 지방선거에는 노동당과 정의당 등 2개의 진보정당에서도 각각 후보를 내 진보정당 '표심'이 크게 나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합진보당은 윤민호 광주시장 후보와 이성수 전남지사 후보를 비롯한 114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노동당은 이병훈 광주시장 후보를 비롯한 11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다. 정의당은 19명의 후보가 출마했으며, 이 가운데 강은미 광주시의원(제4선거구) 후보가 현직 시의원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혁신도시 품은 나주시장 누가 될까

### 새정치 강인규·현역 임성훈 후보 초접전

6·4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의 화두가 가장 심하게 변화된 나주시의 선거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나주는 그동안 단순한 농업을 기반으로 한 구조로 돼 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우정사업정보센터 등 4개 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주를 완료하고 올해 말까지 한전과 농어촌공사 등 나머지 11개 기관의 이전 마무리를 앞두면서 새로운 도시로 거듭나고 있다. 농업도시에서 에너지·농업·환경 등이 함께하는 녹색생명도시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같은 개념에 맞는 인물이 새로운 나주의 시장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주 오피니언 리더를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다. 나주를 광주·전남지역 미래 성장 거점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인물을 시장으로 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나주시청의 한 공무원은 2일 "나주가 혁신도시 완성이라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적극적 행정과 투자 유치, 경영마인드 등을 통해 차원이 다른 성장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따라서 시장도 이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인사가 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현재 나주시장 선거는 새정치민주연합 공천을 받은 강인규 후보와 무소속의 현 시장인 임성훈 후보가 초접전의 판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은 당과 현역 시장 프리미엄을 내세워 표밭을 공략하고 있으며 저마다 나주 혁신도시의 발전을 이끌 적임자임을 강조하고 있다.

때문에 공약 부문에서도 혁신도시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

강 후보는 "원도심을 역사와 전통, 맛과 멋의 문화가 살아 숨 쉬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서 혁신도시와 원도심이 서로 같이 발전하도록 할 것"이라며 "나주의 미래를 책임질 혁신도시를 대한민국 대표 명품도시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임 후보는 ▲한전 등 공기업 관련 연관기업 유치로 제조업 비중 확대 ▲혁신도시와 나주·영산포를 연결하는 광역 교통망 구축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통합센터 유치 ▲공립형 국제고 설립으로 교육 명품 혁신도시 건설 등 세부 공약을 마련,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131226-중-52297호

老안시력
노안교정

밝은광주안과의원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운암동방면 ▲ ◀ 상무지구 방면 신세계백화점 ●
진료내용 노안라식 / Kamra Inlay를 이용한 시술 / 다초점 인공 수정체 / 레스토렌즈
밝은광주안과의원

2014학년도 후기 산업대학원
석사학위과정 신입생 모집

여러분의 못 다 이룬 꿈을 전남대 산업대학원에서 이뤄 드리겠습니다.
주경야독! 직장인을 위한 야간 강의 실시[주1-2회, PM7-11]

■ 지역의 산업 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지식 창조 대학원
-정규 공학석사 학위과정을 졸업 후 박사과정 진학 가능
-학점이수(36학점)로 석사학위 취득 가능(무 논문제)
-본인 업무와 연관된 주제의 학위논문 작성으로 실용적 연구능력 함양과 특허출원 가능
-졸업 후 관련분야 연구 및 과제 수행으로 산학간 연구네트워크 구축

■ 세계화,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알찬 교육프로그램 제공
-창의적 공학설계, 공학프로그램 등 혁신적인 교육 과정 도입
-첨단기자재를 활용한 효과적인 학습자 중심의 교육 실시

■전형일정

| 구 분 | | 일 시 |
|---|---|---|
| 입학원서 작성 | | 2014. 06. 10.(화) ~ 2014. 06. 20.(금) 09 : 00~18 : 00 |
| 입학원서 접수 (제출서류 포함) | 우 편 | 2014. 06. 10.(화) ~ 2014. 06. 20.(금) 09 : 00~18 : 00 (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 |
| | 창 구 | 2014. 06. 10.(화) ~ 2014. 06. 20.(금) 09 : 00~18 : 00 |
| 전 형 일 | | 2014. 06. 27.(금) 10 : 00~ |
| 합 격 자 발 표 | | 2014. 07. 24.(목) 11 : 00(산업대학원 홈페이지) |

■모집학과
건축공학/기계공학/산업공학/재료공학/전기전자컴퓨터공학/토목공학
화학공학/환경에너지공학/친환경농업학/식품·차산업학/지역환경자원공학

■문 의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전화] 062-530-1607 [팩스] 062-530-1942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http : //gsit.jnu.ac.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남대학교 산업대학원

아륭기공주식회사
사 원 모 집

당사는 40년 전통의 오일펌프 전문 제조업체 로서 국내 및 수출증가와 해외 법인 성장에 따른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진취적이고 의욕적인 사원을 모집합니다.

1. 모집내용

| 모집부문 | 모집분야 | 인원 | 자격요건 |
|---|---|---|---|
| 관리직 | 기 술 | 경력,신입 약간명씩 | 기계설계(펌프)가능자 및 경력자 우대 |
| | 품 질 | | 기계(펌프)분야 경력자 및 일어가능자 우대 |
| | 영업관리 | | 여직원, ERP가능자 |
| | 생산기술 | | MCT,CNC관리 유경험자 (퇴직자 시간제 근무 가능) |
| | 수행기사 | | 수행 경력자 우대 |
| 생산직 | | | 창고 정리 및 수출품 포장 |

2. 제출서류
이력서,자기소개서(이력서 상단에 응시분야 및 희망 년봉 표기)
3. 제출방법 : 직접제출, 우편접수, E-Mail (r3714@nate.com) 접수
4. 급여조건 : 당사규정 및 본인 면접후 결정
5. 복리후생 : 4대보험, 주5일근무, 상여금500%, 각종경조비지급, 중식제공,통근버스(광주)운행
6. 제출기한 : 2014. 5. 28 ~ 2014. 6. 10
7. 근 무 지 : 본사 담양 공장 (동광주 IC에서 20분 거리)
8. 기 타 : 자세한 사항은 당사 경영기획본부 (061-380-2201) 문의요함

아륭기공주식회사
전남 담양군 금성면 담순로 48 (우 : 517-811)
Tel(061)380-2200 Fax 382-3094